



기관지 확장증



박성학

대한결핵협회 학술이사 · 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기관지 확장증이란 ?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 기관지 질환중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기도 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넓어지는 병이다. 임상적으로는 평소 기침이 심하고 화농성 가래를 많이 배출하면서 폐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앓았던
호흡기 질환이나
폐결핵의
후유증에 의한
기관지 확장증이
많다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

과거에는 어린 시절 홍역, 백일해를 앓은 후유증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이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앓았던 호흡기 질환이나 폐결핵의 후유증에 의한 기관지 확장증이 많다. 그밖에 기관지 폐색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들, 예를 들어 폐암, 이물질, 기관지 결핵, 임파선 종대에 의한 기관지 압박, 기관지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세균 감염에 의한 폐염 등에

의해서도 잘 발생하는데,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폐결핵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25% 정도나 차지한다.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운 동성 섬모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다. 이 질환은 선천적으로 체내에 있는 모든 섬모기능이 감소하는 병인데, 기관지 확장증, 축농증, 불임증등을 함께 나타내게 된다.

기관지 확장증의 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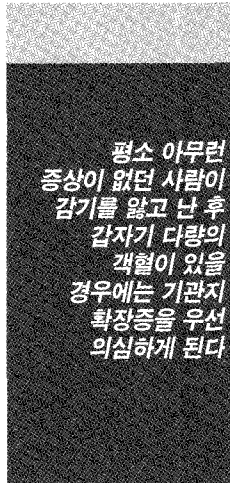
기관지 폐색 자체에 의해서 가래가 배출되지 못하므로 이차적인 폐염 등이 발생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원래 기관지에는 아주 미세하게 항상 움직이고 있는 “섬모”라는 것이 있어, 가래나 기관지 내로 침입한 먼지나 세균 등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열거한 질환들이 생기면 이러한 섬모기능이 감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아예 없어져서 기관지 안에는 가래가 차게 되고 염증이 발생하여 이차적으로 기관지 확장증을 일으키게 된다.

기관지 확장증의 증세

기관지 확장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전형적인 증상으로 만성적인 기침, 가래, 객혈 등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찬 경우도 있다. 기침은 거의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며, 가래는 색깔이 누렇고 양도 많은데 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많이 배출하게 된다.

그외 전신증상으로 체중감소, 빈혈,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의 상당수가 객혈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객혈의 양은 환자마다 매우 다르다.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이 감기를 앓고 난 후 갑자기 다량의 객혈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증을 우선 의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는 정도의 객혈이라 할지라도, 곧 다량의 객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를 찾아 검



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다량의 객혈로 질식이 되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지 확장증의 진단

우선은 환자의 병력과 임상 증상 및 진찰 소견이 중요하다. 즉 평소에 기침, 가래가 많고, 다른 사람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청진상 수포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다.

그 외 검사 방법으로 객담검사,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 기관지 조영술, 기관지경 검사,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게 된다. 객담검사 소견으로는 다량의 화농성 객담이 배출되고 원인균으로 H. influenza, 혐기성 세균 등이 많으며 녹농균, 대장균 등도 검출된다.

**기관지경 검사는
질환 자체의
확진에는
큰 도움이 못 되지만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 기관지
폐색 부위나
출혈부위를 찾을 때
도움이 된다**

방사선학적 검사로 우선 단순 흉부 엑스선상 특이 소견 없이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기관지확장을 나타내는 소견으로 기관지를 따라 관상의 음영이 보이기도 하고 폐허탈이 동반되어 폐용적이 감소하기도 하며 다수의 낭포상 음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확진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기관지 조영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환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단점이 있고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흉부 컴퓨터 촬영을 이용하여 쉽게 진단할 수 있다. 기관지경 검사는 질환 자체의 확진에는 큰 도움이 못되지만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 기관지 폐색 부위나 출혈부위를 찾을 때 도움이 된다. 폐기능 검사 소견으로는 초기에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진행이 되면 폐색성 환기 장애를 나타낸다.

기관지 확장증의 합병증

합병증으로 폐렴, 폐농양 등을 잘 일으키고 더 진행되면 폐성심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축농증이 잘 동반되므로 이비인후

과 진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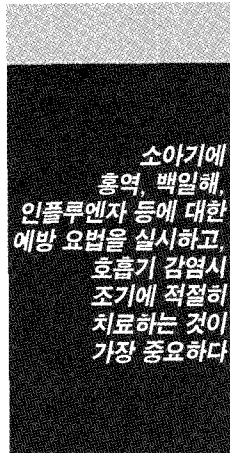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

치료의 목적은 기관지 확장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관지의 염증에 의한 질환이므로 감염에 대한 치료 및 적절한 객담 배출이 치료의 근간이다.

호흡기 감염이 병발하거나 객담이 화농성이면 항생제를 투여한다. 원칙적으로 객담배양검사의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선택해야 한다.

항생제의 사용기간은 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객담이 없어지거나 화농성의 객담이 호전될 때까지 사용하며 대부분 7일 전후 기간이 필요하다. 가래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 체위 배출법이 효과적인데 체위 배출법은 점막섬모청소율을 증가시키고 객담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점액용해제를 투여하기도 하나 적당한 습도 조절이 더 도움이 된다.

그 외 보조요법으로, 객담배출이 용이하지 못할 때는 기관지경을 이용해 가래를 뽑아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흡연을 금해야 한다. 대부분 내과적인 치료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질환이 국소적이거나 다량의 객혈이 있는 경우, 또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기관지 확장증의 예방

소아기에 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 요법을 실시하고, 호흡기 감염시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기관지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기관지 폐색을 제거하여야 한다. 전신질환의 폐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많으므로 전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